

IBKS Economy Monitor

Focus on Week: 5%선에 도달한 미국 시장 금리,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

금리 방향성에 대한 것과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 먼저,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시적이기 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작용한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미 연준이 금리 정책 기조를 인하 쪽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5% 전후 또는 5%대 초중반의 금리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

미국 시장 금리인 국채 10년물 금리가 9월 FOMC를 전후로 5% 선에 도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던 2007년 6월 이후 근 20년 만에 다시 5%대 시장 금리가 기록된 것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된 시장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번 주 5% 선에 도달한 미국 시장 금리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금리 방향성에 대한 것으로 5%대 시장금리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5% 선에 안착하며 새로운 균형점(new normal)이 형성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번 경기 국면에서 시장금리 5% 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먼저, 향후 금리 방향성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5%대 금리가 상당히 장기화 되며 새로운 금리 균형점이 형성될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9월 FOMC를 앞두고 형성된 일시적인 반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미국 시장 금리는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작용한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미 연준이 금리 정책 기조를 인하 쪽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5% 전후 또는 5%대 초중반의 금리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미국 시장 금리 상승이 미 연준의 매파적 기류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미 연준이 실제 금리를 인상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해 준다면 금리가 다시 안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리고 연준의 매파적 기류는 이란과의 전쟁에 의해서 촉발된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에 기인하는 만큼 전쟁이 종료되면 시장 금리는 자연스럽게 이전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 두 사안 모두 일시적인 금리 반락을 만들 수는 있지만 반락 폭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의 상승 추세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미국 시장 금리 상승이 단순히 유가나 연준 금리 기대만을 반영한 상승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2026년 7월 31일자 IBKS Economy Monitor ‘지금 미국 금리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 ▶ 워시보다 트럼프 정책에 더 주목’ 참조). 연준의 DKW(D'Amico, Kim, and Wei)모형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기대인플레이션과 연준기준금리에 대한 기대치 및 기간 프리미엄 모두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기간 프리미엄이다. 지금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이나 연준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치 상승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며 존재감이 크게 부각된 것은 기간 프리미엄이기 때문이다.

Economist

정 용 택

02) 6915-5701

ytjeong0815@ibks.com

RA

김 희 주

02) 6915-5685

nkjhj0130@ibks.com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추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기간프리미엄이 부각되는 것은 트럼프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전쟁을 포함한 불확실성을 늘리는 정책도 그렇지만 감세나 현금 살포와 같은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골자로 하기 때문이다(2026년 6월 26일자 IBKS Economy Monitor ‘하반기 미국 금리, 연준보다는 트럼프 정책에 더 주목’ 참조). 결국 이 정책 기조가 약화되기 보다는 향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미국 시장 금리가 추세적인 상승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보는 가장 중요한 근거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 5%라는 수치 자체보다는 지금 미국 시장 금리가 신용위험을 현실화 하거나 투자를 빠르게 위축시킴으로써 경기가 변곡점을 맞이하는 임계점에 도달했거나 근접해 있다는 점에 주목

금리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미국 시장 금리 5% 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미국 시장 금리가 5% 선에 도달한 만큼 과거 아픈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5%라는 수치 자체보다는 지금 미국 시장 금리가 신용위험을 현실화 하거나 투자를 빠르게 위축시킴으로써 경기가 변곡점을 맞이하는 임계점에 도달했거나 근접해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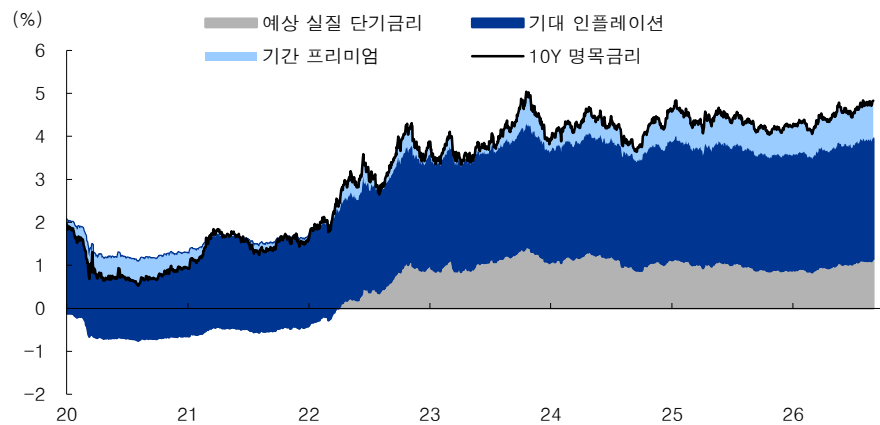
우리는 이전 자료들에서 여러 번 언급(2026년 6월 1일자 IBKS Economy Outlook ‘Peril point - 이번 경기사이클은 어떻게 막을 내릴까?’, 2026년 8월 14일자 IBKS Economy Monitor ‘이번 사이클의 변곡점을 만드는 금리는 얼마일까?’ 참조)했던 것처럼 미 연준에서 발표하는 DKW (D’Amico, Kim, Wei)모형을 토대로 적정금리를 구해보고 이를 이용해 금리 임계치를 추정해 보는데 이 방법을 토대로 구해진 현 국면에서 미국 시장금리(10년물)의 적정 수준은 4.2% 수준에 있고 이번 경기의 임계점으로 볼 수 있는 상방 밴드는 5%대 초반 수준이다. 지금 미국 시장 금리 5%는 이 수치에 거의 도달해 있음을 의미한다. 금리 임계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 상황과 사이클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지난 2023년경에는 4% 내외였고 2006년경에는 5% 수준이었다.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이 추정치들을 검증해 보면, 2012년 유럽금융위기국면처럼 이례적인 외부충격과 정책적 대응으로 왜곡된 시기를 제외하면 임계점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보여진다. 시장 금리가 상방 밴드에 접근하거나 넘어서는 시기는 실제로 금융상황지수나 회사채스트레스 지수 또는 선행신용지수 등 신용 상황을 보여주거나 자금조달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기업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나 투자와 관련된 지표의 급격한 위축과 연결되고 결국 경기사이클을 보여주는 지표들의 반전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미국 금리가 5%선에 도달하며 임계점에 근접했다는 것은 투자 및 거시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금리 부담 역시 임계점에 접근해 있음을 의미하고 이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서 불거져 나온 AI투자 속도 조절론은 우연일까? 우리는 보안이나 후발 주자 견제와 관련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급증하는 투자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이번 경기사이클에서 특히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여기서 이어진 신용위험이 빠르게 증폭되며 사모신용문제 등을 통해 표면화될 가능성(2026년 6월 1일자 IBKS Economy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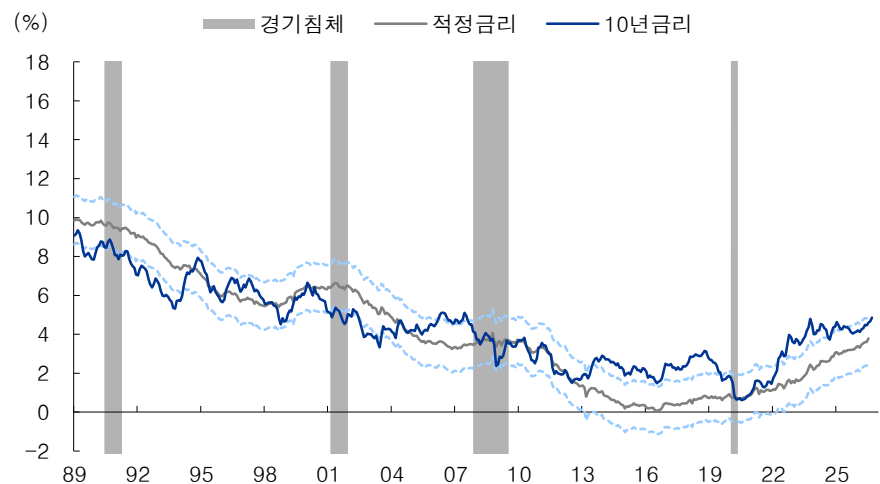
‘Peril point – 이번 경기사이클은 어떻게 막을 내릴까?’ 참조) 역시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림 1. DKW 모형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기별로 시장 금리를 움직이는 주된 동인을 보면, 팬데믹 직후인 2020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상승하며 시장 금리를 가파르게 상승시킴. 2022년과 2023년은 연준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치를 의미하는 예상 실질 단기금리가 빠르게 비중이 늘어남.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부당한 2024년 하반기 이후에는 그 동안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기간프리미엄이 비중을 늘려오고 있음 ➡ 현재 미국 시장 금리 상승이 단순히 유가나 연준 금리 기대만을 반영한 상승은 아니라는 의미 ➡ 연준 금리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트럼프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주된 동인이 이동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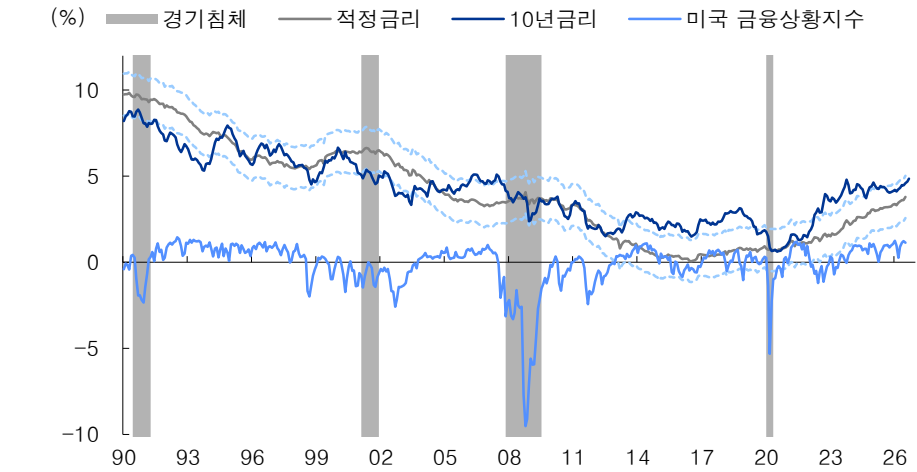
자료: Fed, IBK투자증권

그림 2. DKW모형을 토대로 구해본 적정금리와 경기의 상하방 변곡 임계치로 볼 수 있는 표준편차 밴드 그리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 ➡ 5%라는 수치 자체보다는 지금 미국 시장 금리가 신용위험을 현실화 하거나 투자를 빠르게 위축시킴으로써 경기가 변곡점을 맞이하는 임계점에 도달했거나 근접해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주시



자료: Bloomberg, Fed, IBK투자증권

그림 3. 시장 금리가 상방 밴드에 접근하거나 넘어서는 시기는 실제로 금융상황지수나 회사채스트레스 지수 또는 선행신용지수 등 신용상황을 보여주거나 자금조달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 → 2006년과 2007년의 사례나 2023년의 경우가 대표적



자료: Bloomberg, Fed, IBK투자증권